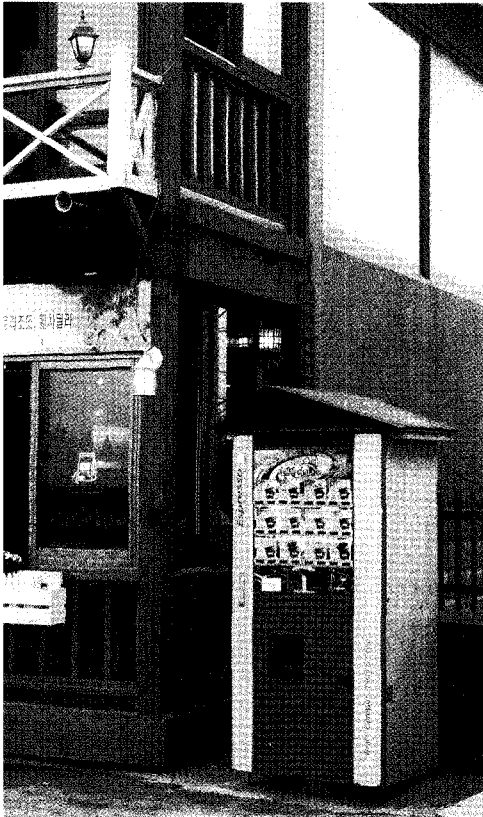




▲자판기에 '길거리 카페'가 소개된 신문기사를 붙여 놓았다



자판기의 천국 강릉 안목해변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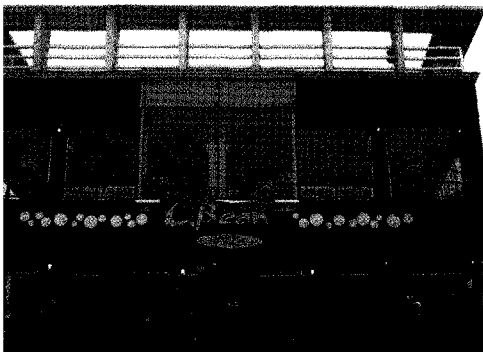
- ▶바다의 낭만과 더불어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게 인기 비결
- ▶노후한 자판기들의 비중이 높아 최신 제품 위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과제

자판기 커피가 가장 맛있게 느껴질 때는 어떤 경우일까?

일단 커피 맛이 좋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커피 값도 싸야한다. 또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마시면 더욱 좋다. 여기에 바다처럼 낭만적인 분위기 물씬 풍기는 곳이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이 같은 조건을 부합하는 환상적인 로케이션이 있다. 강릉의 안목해변의 커피거리. 바다의 낭만이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커피자판기의 천국이다. 소위 <길카페>라 불릴 정도로 거리 곳곳에 커피자판기가 늘어서 있다.

과연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해안가의 한 커피전문점



▲안목해변 거리



안목해변이 인기를 끈 것은 바닷가가 강릉시내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부담 없이 찾아와 바다의 낭만을 커피 한잔과 만끽할 수 있다는 요인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10여분 가면 안목해변에 닿는다. 백사장 길이가 약 500m 되는 해변이다. 이곳 백사장 뒤 해안도로는 10여 년 전부터 커피자판기가 많아 <길 카페>로 통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식당 옆, 슈퍼마켓 앞, 공중화장실 옆 등 곳곳에 커피자판기 천국이다. 주변에는 세련된 커피 전문점 역시 10여 곳이 넘는다. 이 거리에 현재 운영되는 커피자판기는 30여대에 달한다.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커피자판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풍경은 이곳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유독 이곳에 커피자판기가 많이 설치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인근의 경포해수욕장의 카페가 분위기 좋다고 인기가 높아지자, 자판기사업자들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다.

안목해변이 강릉시내에서 가까운 바닷가라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커피자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던 것. 예상은 적중했다. 특히 주머니 가벼운 젊은 층 사이에서 대박이 났다.

젊은 남녀들은 데이트하면서 자판기 커피한잔을 즐기는 낭만을 만끽했다. 또 젊은 청춘남녀들이 드라이브를 즐기면 이곳을 찾아 자판기 커피 한잔을 즐기는 것은 유행이 되었다. 아주머니들도 강릉시내에서 점심 계모임을 하고, 이곳을 찾아 못다 나눌 수다(?)를 이어가기도 했다.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오는 직장인들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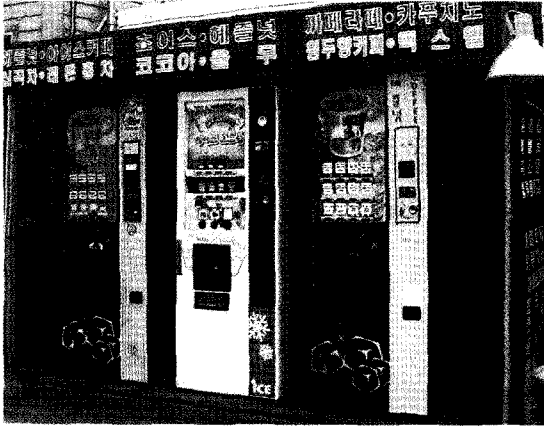
이처럼 안목해변이 인기를 끈 것은 바닷가가 강릉시내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부담 없이 찾아와 바다의 낭만을 커피한잔과 만끽할 수 있다는 요인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곳 커피자판기 로케이션으로는 천혜의 입지라 할 수 있다.



▲ 공짜 커피 한잔을 제공하는 이벤트자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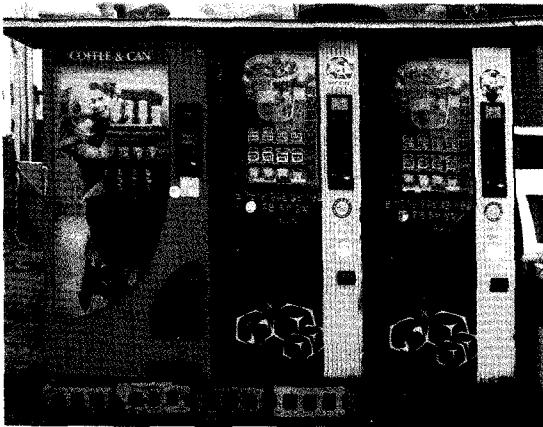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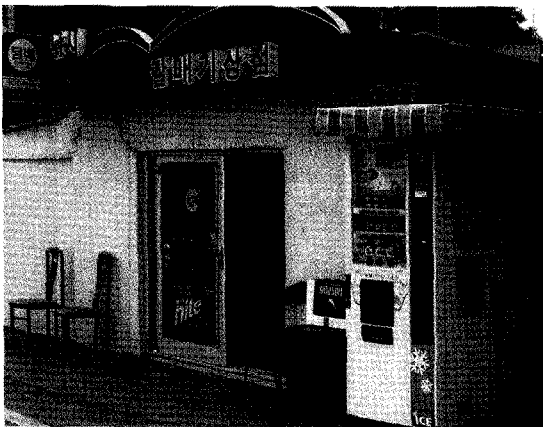
▲부스 상단에 써놓은 메뉴가 이채롭다



▲부스마다 개성이 흘러 넘친다



▲하단 벽돌설치가 눈에 거슬린다



▲노후된 자판기들이 많다는 점이 아쉬움이다



여기에 자판기 운영자들의 정성과 높은 서비스 정신에 합쳐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한몫을 했다. 실제 안목해변의 커피자판기들은 개성이 넘친다.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커피를 프로모션 하는데 거침이 없다, 시원시원하게 파는 커피종류를 알리는 것은 기본이다. 투박하지만 자판기 측면에 커다랗게 파는 커피 종류를 표기해 홍보하기도 한다. 버튼에는 판매종류 커피를 크게 적어 넣어 소비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한 예로 노란색의 종이에 커피 종류를 크게 명시된 자판기는 <이 자판기의 커피가 웬지 다른 맛을 제공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어떤 커피자판기는 공짜 마케팅까지 펼친다. 커피자판기 상단에 <다 드신 커피 잔을 버리지 마시고 뒤집어 보세요. 커피를 공짜로 드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써 붙여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처럼 안목해변의 커피자판기는 고객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하는 운영자의 적극성을 느낄 수 있다. 고객을 어떻게 하면 불러 모으고, 최선의 자판기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많은 신경들을 썼다. 천혜의 환경도 도움을 주었지만 이런 노력 탓에 고객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쉬움이 하나 있다, 안목해변의 자판기들을 두루 둘러보니 자판기 기종들이 대체적으로 노후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고자판기를 가져다 설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보였다. 커피 거리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원두커피자판기가 한대밖에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의외이다. 그만큼 최신 자판기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자판기 기종들이 노후하다보니 주변의 세련된 커피전문점들과 맞상대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커피자판기 운영대수는 많이 감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주변 커피 상권들이 점점 화려해 지고, 양적 확장을 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안목해변의 커피자판기들도 이에 걸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길카페>가 절로 잘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커피에 대해 눈높이가 높아지는 소비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안목해변의 커피자판기들은 좀 더 고급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어떤 커피자판기는 공짜 마케팅까지 펼친다. 커피자판기 상단에, “다 드신 커피 잔을 버리지 마시고 뒤집어 보세요. 커피를 공짜로 드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써 붙여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 드라이브를 즐기다 커피잔을 즐기는 문화는 안목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시원시원한 메뉴 버튼